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9년 4월 12일(금)

...(음력 3월 8일)...

Пятница

12 апреля 2019г.

№ 14(116831)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지난 주에 사할린국립대에서 <러시아 대학생의 봄 2019> 사할린지역 단계가 진행되었다. 수백명의 학생들은 무용, 음악, 언론, 노래 등 부문에서 경쟁했다.

<악단 연주>부문에서 사할린한인문화센터 소속 <하늘>사물놀이그룹(지도 송 알리크)이 1위를 차지했다.

(사진: 송 알리크 제공)

사할린주정부, 지역개발 우선 순위 논의

2035년까지의 사할린 및 쿠릴열도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 개발 일환으로 사할린주정부에서 여러 원탁모임이 있었다. 주정부 및 지방자치체 관계자, 경제전문가, 그리고 지역 기관 및 기업 지도자들은 섬 지역의 장래를 논의했다.

사할린주 사회경제발전의 새 전략은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권한대행의 위탁으로 주정부와 함께 <세웨로-자파드(서북)>전략개발센터가 준비한다.

지사대행에 따르면 새 전략의 사항은 현재 모든 정부 산하 기관과 비즈니스분야 대표들이 논의중이다. 앞으로는 일반 주민들과의 대화가 예상된다. 대중의 동의를 받는 제안들은 최종 지역발전프로그램에 포함될 것이다.

원탁모임에서는 주로 사할린주 제반시설 개발과 공간발전 등 사안이 토의되었다. 참가자들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선진국가들과 이웃을 하는 우리 섬지역이 교통분야에서 필히 현대식 기준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결과 물류이동이 보다 용이해지고 섬주민들의 생활수준과 편의도 향상될 것이 기대된다.

교통인프라구조에 대한 원탁모임은 따로 있었다고 주정부 부수상 블

라지미르 시도렌코가 언급했다. 현재 이 방면에서 많은 움직임이 있다.

또 다른 원탁모임에서는 도시 환경 개발과 핵심 경제분야 발전문제를 논의했다. 이 원탁모임에 참가한 유즈노사할린린스크시 세르게이 나드사진 시장에 의하면 도시는 갈수록 투자자들의 보다 큰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투자가획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한편 새 일자리도 창출되고 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는 점차 국내 여행지로 알려져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도 늘어나고 있다.

주중앙도시에는 해마다 보다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한 편리한 휴식장소, 스포츠시설, 문화기관, 소공원, 카페와 레스토랑이 생긴다고 나드사진 시장이 덧붙였다.

4일간 토론결과 사할린주의 우선적인 개발방향의 그림이 그려졌다. 그중에는 편리한 도시 환경과 사업을 위한 여건 조성, 관광 및 제반시설의 발전, 디지털화 등을 꼽을 수 있다. 가장 유망한 사업방향으로는 석유와 가스 개발, 운송, 어업, 연료 및 에너지, 농업 분야와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단지 조성, 목공 산업, 건축자재 생산, 산업혁신과 교육분야 등이 지정됐다.

(주정부 홍보실 자료에서)

러시아관광청, 사할린주 관광 발전 구상 긍정적 평가

상기 소식이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권한대행의 사회하에 진행된 투자활동위원회 회의에서 발표되었다.

지사 권한대행에 의하면 지역경제에서 관광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바 관광인프라의 개발은 바로 빠른 기간내에 사할린과 쿠릴열도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새 관광 컨셉은 <고르너 워스두흐>스키리조트 발전에 중점을 둔다. 또한 이 프로그램에 의해 유즈노사할린스크 도시환경, 쿠릴열도의 자연유산, 환경보호관광, 스포츠, 미식관광, 풍부한 해산물자원, 온천개발 등이 관광객 유치에 한 몫 할 것으로 보인다.

사할린주스포츠관광 및 청소년정책부의 나탈리아 파홀코와 관광국장에 따르면 작년에 사할린주의 관광사업에 1억 3260만루블리가 지출되었다. 올해는 관광분야에 5억317만루블리를 투자할 예정이다. 이 자금으로 12개 지방자치체에서 관광 인프라 시설이 건설될 것이다.

회의에서는 스미르니흐구역 시멘트공장 건설안이 전문가들과 주지사 대행의 동의를 받았고 가리비 양어작업도 논의되었다.

리마렌코 주지사 권한 대행은 사할린주정부는 비즈니스계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면서 이를 위해 주정부는 제반 사업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신

악시 주교 - 신임 사할린 및 쿠릴 주교

4월 4일 러시아 정교회 성직자 회의에서 여러 교구장 주교의 인사이동이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16년간 사할린 및 쿠릴 주교로 활동한 찌혼 주교는 오롤 및 볼호브 교구장으로 전임하게 된다. 찌혼 주교를 38세의 네르친스크 및 크라스노카멘스크 주교인 악시 주교가 대신 할 것이다.

한번도 사할린으로 와보지 못한 악시 주교는 10일 사할린에 내도했다고 전해졌다. 찌혼 주교는 12일 사할린을 떠난다.

올 4월 14일, 사할린에서 씨름대회 개최

오는 4월 14일(일) 오전 10 <워스토크>스포츠훈련센터에서 사할린주씨름협회(회장 춘 알렉세이)의 주최로 씨름대회가 개최된다. 사할린주씨름선수권대회에는 아니와, 홈스크, 네웰스크와 유즈노사할린스크 선수 약 60명이 참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할린에서 민족씨름을 발전시키고 하는 사할린씨름협회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씨름협회 박팔용 회장을 비롯 총 9명으로 구성된 한국대표단이 사할린을 찾는다.

14일 한국 씨름 선수 시범도 있을 것이라고 주최측이 전했다.

<슬룸베르제>회사, 사할린전문가 유치

지난 10일(수) 사할린주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권한 대행이 <슬룸베르제>석유서비스컴파니 대표들과 만남을 가졌다.

리마렌코 대행은 <슬룸베르제>컴파니가 사할린주정부의 주요 파트너로서 경제 및 사회 분야 발전,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콤파니가 현지 전문가들을 취직시킬 것이라고 주지사 대행이 기대를 표명했다.

<슬룸베르제> 측은 콤파니 직원의 과반수 400명)가 사할린 현지인들이라고 설명하며 사할린 직업인들을 유치하기 위해 이곳 여러 전문학교, 대학과 협력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새고려신문

2019년 신문주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9년 상

반기

새고려신

문 구독을 계속

한다는 것을 알

려드리고 앞으

로도 사할린 한

민족지를 애독

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79루블리 38코페이

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텍스

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신문사에서 일하다 보면 문화 역사 관련 전시회나 행사에서 자주 보게 되는 얼굴이 있다. 그런 사람과는 신문사일로 인연이 닿아 인터뷰라도 하게 되면 반가움이 더 한다. 김찬옥 씨도 10여년 전부터 이런 행사장에서 가끔 만나던 사람이었다. 그러다가 사할린주 전자백과사전에 새고려신문에 대한 정보가 올라가면서 비로소 김찬옥 씨와 통성명을 하게 되었다.

김찬옥(러시아어명 타마라 길리엠티나) 씨는 역사고문보관소 정보·문서 출판 및 과적 사용 부서의 부장이다. 2007년에 이곳에 취직했다고 하니, 역사고문보관소에서 일한 지도 12년이 되어간다. 대학 전공과는 영 다른 일을 하게 될 줄은 그도 몰랐다고 한다.

1979년 노워시비르스크 전가기대학에서 전기기계 전공을 한 그는, 졸업 후 노워시비르스크 시베리아전기화물기계 공장 산하 연구소로 파견되었다. 이곳에서 6년을 근무하고 사할린 코르사코브 고향으로 돌아와보니,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이 이제는 시집을 가야 하지 않겠냐고 그녀를 설득했다. 그 무렵 소개받은 남자 중에 마음에 드는 총각과 결혼을 해, 어느덧 작년엔 결혼 30주년을 맞았다. 네헬스크해양전문학교를 졸업한 남편은 한평생을 바다에 바친 사람이다. 현재도 <이고리 파르후트지노브> 여객선에서 라디오담당을 하고 있다.

결혼 후 두 딸을 낳았는데 둘째 딸이 몸이 안 좋아 거의 10년을 가정주부로 지냈다. 부지런하고 호기심 많고 항상 교육의지가 강했던 그는 컴퓨터를 배우고 도서관에서 1년 근무하다가 러시아통상경제대학 유즈노사할린스크 분교에서도 일하게 된다. 2007년엔 지인 추천으로 역사고문보관소에 취직하게 되는데 이 곳에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과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역사고문보관소 김찬옥(타마라 길리엠티나) 부장 소개



하는 일이 이렇게 큰 만족감을 줄 줄은 그도 몰랐다고 한다. 취직한지 1년이 지나 그는 러시아주 전자 백과사전 창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

"제가 역사고문보관소에서 일하는 동안 여기에 입사하기 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특히 백과사전을 만들 때 많은 지식인들을 만나볼 수 있었어요. 이 작업에 사할린의 모든 연구소 전문가들이 참가했거든요. 이 분들은 자신의 분야에 대해 자부심과 지식이 넘치는

전문가들이죠. 이런 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이걸 나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도 아주 좋은 일이었죠. 그러면서 준비하는 자료에 스스로 관심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라고 김찬옥 씨가 말한다.

탁월한 능력으로 그는 7년만에 부장까지 승진하게 된다. 그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고문서 출판이다. 한때는 열람할 수 없었던 문서들을 공개하고 소개하며 역사고문보관소의 연구자료도 출판한다.

전시, 견학, 홍보 사업도 김 부장 부서의 책임이다. 그의 부서가 준비한 전시회 중에는 2014년 러시아로 이주한 고려인 이주 150주년 기념 전시가 있다. 얼마전 체호브극장에서 열린 사할린주 극장들에 대한 전시회도 그의 부서가 주관한 것이다. 이때 소개된 극장 중 하나가 조선극장인데, 동포들이 이 부스를 보면서 깊은 회상에 잠겼다고 한다. 한인 동포인 김찬옥 부장도 조선극단 소개 자료는 각별하게 신경을 썼다. 우리말로 된 순회 공연 프로그램은 그의 조카가 번역을 담당했다.

김 부장은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일에 푹 빠져 산다. 사무실에 밤늦게까지 남아 자료를 연구하고 다른 업무도 처리한다. 쌓이는 업무에 지칠 법도 한데 그는 여전히 일을 즐긴다. 전시 주제에 관한 서류, 문서, 연구자료 등을 많이 보고, 이 자료들을 어떤 식으로 반영하면 좋을지,

어떤 재료를 쓸지, 편집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속 아이디어를 찾는다고 한다. 교육의지가 강한 그는 노워시비르스크에서 근무하는 동안 모스크바중앙경제대학을 통신으로 졸업하고 특허엔지니어 자격증까지 따낸 적도 있다.

현재 그의 부서에서는 1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함께 일하는 부원들 모두가 열심이라고 한다. 이중 7명은 시민들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고 나머지는 연구사업을 하고 있다. 좋은 동료, 좋은 전문가들은 항상 함께 지역에 진행되는 모든 컨퍼런스에 참가하려고 한다. 그의 부서 직원들은 세계 10개국 고급 국제 연구가 250명을 초대해 사할린에서 제2차 세계대전을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 적도 있다.

극장 전시 기획이 마무리되고 김 부장은 다시 사할린주 전자 백과사전 편집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에게 이렇게 일을 할기차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사랑하는 가족(남편, 딸들과 사위, 손자)과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이 삶의 에너지라고 그는 말한다.

필자는 김찬옥 부장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느꼈다.

(배순신 기자)
(이예식 기사 촬영)

이모저모

<인민의 승리>행사에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 참가초대

<인민의 승리>행사는 4월 8일 시작되었으며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그 동안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들은 자기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정보수집센터에 대조국전쟁시기의 가족 귀중품 (사진, 훈장증서 사본, 전투장에서 온 편지, 기타 기념 문서 등)을 가져올수 있다. 시민들을 위해 14개의 수집정보센터를 도시와 농촌의 여러 문화기관, 대학, 청소년센터, 클럽 등에 조성하게 된다.

행사에 참가하려면 인근지역의 정보수집점을 찾아가 자리에서 본인이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안кет을 작성하면 된다. 제출자료는 전문가가 스캔하고 원본은 소유자에게 돌려준다.

행사기간 동안 수집된 모든 자료는 <포베다>기념관에 전달, 주제별 전람실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 행사 덕분에 주민들은 조국전쟁에 참전한 사할린 동향인들과 친척들에 대해 좀더 잘 알게 될 것 인바 이를 통해 전쟁시대의 사람들과 사건에 대한 기념문서가 장기적으로는 보존될 것이다. 세월은 무정하여 전전의 편지와 사진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디지털화 된 문서는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고 올레그 고르토와노브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청소년이니서티브센터장이 언급했다.

Южносахалинцам предлагаю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акции "Народная Победа"

Акция "Народная Победа" началась 8 апреля и продлится до конца месяца. В этот период жител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могут поделиться историями своих семей и принести в пункты сбора информации семейные реликвии военного времени: фотографии, копии наградных листов, фронтовых писем и других памятных документов. Всего будут действовать 14 пунктов в учреждениях культуры, вузах и клубах центра молодежных инициатив, которые для удобства жителей расположены в разных частях города и селах.

Для участия в акции можно выбрать один из удобных пунктов сбора информации, заполнить на месте небольшую анкету для уточнения содержания предоставленных материалов, которые специалист отсканиру-

ет и вернет оригиналы владельцу.

Все материалы, собранные в ходе акции, будут переданы в музейно-мемориальный комплекс "Победа" и использованы в тематических экспозициях.

— По итогам акции сахалинцы смогут узнать о родственниках земляков, участвовавших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А долгосрочным итогом акции станет сохранение памятных документов о людях и событиях военных лет. Время не жалеет фотографии и фронтовые письма, а в оцифрованном виде они могут храниться вечно, — отметил директор МБУ "Центр молодежных инициатив" Олег Гортованов.

Акция "Народная Победа" проводится центром молодежных инициати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и поддержке департамента культуры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орода, музейно-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Победа",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 Сахалин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сообщает ЦМИ.

돌린스크 유치원, 아빠들에 대한 다큐멘터리 촬영

돌린스크시에서 <러시아>영화여가센터와 마을 유치원의 학부모위원회가 공동으로 제작한 특이한 영화의 초연이 있었다. <아빠가 필요해>영화에는 현대 삶의 관점에서 아버지와 아이들의 영원한 문제를 제기한다.

소콜촌 <로신카>유치원 빅토리아 키슬로와 원장은 "아버지들이 참여할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는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다"며 이어서 "프로젝트 일환으로 <아버지 모임>을 구성했는데 이 모임에 여러 연령의 아빠 15명이 참가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아빠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치원행사를 모두 다큐멘터리로 촬영했다.

"이 기획을 시작할 때 좀 놀랐습니다. 건강한 가족 홍보가 처음으로 이런 식으로 선보였기 때문입니다"라고 돌린스크구역 문화회관 나탈리아 보키나 관장이 덧붙였다.

비디어 제작자인 막심 와실레츠는 자발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 직접 촬영과 편집 작업을 맡았다.

"자료는 아주 많았고 며칠씩 편집을 하느라고 밤늦게 퇴근하거나 밤을 여기서 새기도 했다"고 비디오 제작자가 얘기했다.

다큐영화 초연이 있을 때 영화 주인공으로 나왔던 사람들이 남먼저 상영장을 찾았다. 영화 제작진 멤버

인 "아빠 모임"의 활동가 옐게니 스톨로브는 이 영화가 자기 시청자를 찾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 영화는 우선 자녀 교육과 여가에 관심을 제대로 기울이지 못한 부모를 위한 것입니다"라고 옐게니가 강조했다.

В Долинском детсаду сняли документальный фильм про отцов

В Долинске состоялась премьера необычного фильма, который создали сотрудники кинодосугового центра «Россия» и члены родительского комитета сельского детского сада. В картине «Нужен папа» поднимают вечную проблему отцов и детей, рассуждая о ней с точки зрения современной жизни.

Идея проекта, в котором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папы, зрела уже давно.

— Мы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создали «Совет отцов», туда входит 15 человек, все разного возраста, — рассказала заведующая детсадом «Росинка» села Сокол Виктория Кислова.

Все мероприятия, которые прошли в учреждении при активном участии пап, сняли для документального фильма.

— Когда затеяли этот проект, я была удивлена. Потому что пропаганда здоровой семьи впервые так освещается, — добавила директор клубной системы Долин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Наталья Бокина.

На добровольной основе к проекту подключился видеограф Максим Василец, который взял на себя съемку и монтаж.

— Материала было очень много, монтировали несколько дней, сидели до ночи, оставались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ь, — поделился видеограф.

На премьеру пришли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те, кто снимался. Один из создателей фильма и активный член совета отцов — Евгений Стулов — надеется, что фильм найдет своего зрителя.

— Прежде всего, фильм для тех, кто уделяет мало внимания досугу и образованию своего ребенка, — отметил Евгений.

러시아국민, 5월에 13일간 휴식

2018년 10월 1일부터 러시아연방령에 따라 국민은 5월의 상반기에 9일간 휴식한다. 5월 1일부터 5일까지, 그리고 5월 9일부터 12일까지다. 이렇게 긴 연휴는 1월과 2월의 공휴일을 일부 연기함으로써 가능해졌다.

(8면에 계속)

사할린한인협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한국국회에 발의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관련, 지방한인회 의견 수렴 예정

지난 6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한인협회 운영위원회 회의가 소집되었다.

의제로는 1/4분기 사할린한인협회 사업 보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논의, 기타 문제가 올랐다.

이번 회의에는 운영위원회 위원 26명 중 17명이 참석했다.

회의 의장으로는 오진하 위원, 서기로는 최 엔지아 씨가 선발되었다.

첫 의제로 박순옥 사할린한인협회장은 다음과 같이 사업 보고를 했다.

1-2월에는 주정부 장려금(그란트) 받기 위한 서류 기획, 작성, 준비 등에 시간을 투자한 결과 100만 루블의 장려금을 지원받았다. 장려금으로 사할린한인협회의 여러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사할린-1>석유가스 프로젝트 컨소시엄으로부터도 장려금을 받았다.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들은 한국 동화를 포함해 세계 동화를 영어로 발표하는 무대에 올랐다. 행사는 4월 4-5일 이틀간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진행되었다.

또 1-2월에는 주한인협회에서는 KIN(지구공동포연대)이 제작한 세계에 하나뿐인 달력을 비롯, 재외동포재단의 달력 등을 사할린 한인들에게 나눠주었다.

전통적으로 음력설맞이 행사가 있었고, 2월 말에는 사할린에서 최초로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음력설, 3.1운동 100주년 행사에 대한 자세한 기사 본지에 게재했음. -기자주). 3월 2일에는 주한인여성회(회장 김웨철)와> 3·8절 행사를 개최했다. 또한 <60+>여가클럽 제안이 들어와 3월 30일 처음 70-80여명의 2세가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첫 모임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4월 27일 공식적으로 <60+> 여가클럽 창설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3월 15일 사할린한인협회는 한국에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들어와 협회 측에서 이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법안을 배포하고, 내용 검토 및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 또한 사할린한인 다수가 한국어가 미약하기 때문에 김종길 씨에게 러시아어 번역을 부탁했다고 박순옥 회장이 덧붙였다. 번역은 완성되었지만 아직 최종감수 절차가 남았다.

두번째 의제로 박순옥 회장은 특별법 관련 사할린 한인들의 의견 및 제안을 4월말까지 협회 측에 전달해주시기를 요청했다. 사할린한인협회 측에서 사할린동포 특별법안 제안 발기그룹을 구성하고 모든 제안을 검토 후 의견서를 작성해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미 특별법안 내용을 파악한 2세 동포인 이채인 씨는 이날 구체적인 제안을 많이 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자동 국적 회복이다. 사할린 동포들은 자동적으로 국적 회복을 할 수 있다는 추가사항을 제안했다. 또 한 제의는 사할린 동포위원회 구성과 관련 돼 있다.

러시아어로 법안을 번역한 김종길 씨는 간단히 특별법안을 소개했다. (이 내용은 아래 소개).

사할린주한인노인회 김흥지 회장은 구체적인 추가사항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이 법안이 통과하도록 사할린한인협회가 한국에 있는 사할린동포회, 모스크바 사할린한인연합회를 비롯 러시아 및 독립국가 연합의 사할린동포회 등이 의견을 모아 한 목소리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박순옥 회장은 이 법안에 꼭 사할린 잔류 한인들을 위한 지원책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차세대를 위한 한국어 및 문화활동 지원, 한인 언론사인 새고려신문과 우리말방송 지원 등이다. 그리고 사할린한인들이 한국의 의료보험 혜택을 보다 간편한 절차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또한 박순옥 회장은 이번 특별법안 발의자 중 한 분은 지난 2월에 사할린을 다녀간 이종걸 의원도 있다면서 법안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특별법안 발언자 모두가 웅은 말씀을 많이 했다. 좀 아쉬운 것은 회의장에서 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안 사본이 배포되었으면 하는 것이었다.

회의에서는 지방한인회들이 받은 특별법안을 심의한 후 주한인협회로 제안, 의견 등을 보내기로 했다.

사실 한국 국회에는 2005년부터 사할린동포 특별법안 7건이 발의 되었는데 대다수가 위원회 심의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기타 문제에 들어가서 오진하 위원이 사할린주한인협회

정관 수정 사항을 설명했다. 새고려신문사 배 워토리아 사장은 본지 창간 70주년 기념 문예콩쿠르 공고를 하면서 지방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주한인협회 내 있는 분열로 이날도 독산원에 위치한 사할린한인추모관, 3·8절 기념행사 문제 등으로 따지고 싸웠다.

이에 대해서 이채인 씨는 특별법안 통과를 원하면 싸우지 않고 한 목소리를 모아 나가야 한다고 했다…

(배순신 기자)

보다 더 많은 동포들에게 특별법안 내용을 알리기 위해 아래에 주요내용 게재한다.

주요내용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발췌)

가. 이 법은 일제강점기에 사할린으로 이주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며, 국내유족의 권익보호와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사할린동포 및 국내유족에 대한 피해구제와 일제강점 당시 개인별로 적립한 저축금·미지불임금·보험금·연금 등의 상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국가와의 교섭·협력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일제에 의한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결정, 관련 국내의 자료의 수집·분석 및 유해의 조사와 발굴·수습·봉환, 동반가족 여부 결정, 역사관 및 추도공간 조성, 사할린동포를 위한 양로원 및 의료기관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할린동포지원위원회를 둠(안 제6조).

다. 사할린동포 또는 사할린동포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의 신청 또는 피해신고를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진상조사의 신청이 각하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진상조사개시결정을 하고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함(안 제18조 및 제20조).

라. 위원회는 진상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피해사건 및 그 피해인지의 여부, 해당 피해사건 및 피해의 원인·배경, 사할린동포 또는 국내유족인지의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함(안 제23조).

마. 위원회의 진상조사 결정에 따라 사할린동포 또는 국내유족으로 결정받은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외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안 제32조).

바. 국가는 지원대상자 중 귀국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조속한 영주귀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주귀국하는 사할린동포 중 그 가족과 함께 귀국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족을 동반하여 귀국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마. 국가는 사할린동포와 영주귀국가족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에 상응하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함(안 제34조).

바. 영주귀국가족 및 국내유족에 대하여 주거지원 및 직업훈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및 제39조).

사. 영주귀국가족에게 정착금 및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취업보호, 영농정착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제40조 및 제42조).

아. 국가는 영주귀국가족의 생활안정 및 취업 지원 사업 등을 위하여 사할린동포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함(안 제44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할린동포”란 일제에 의하여 1945년 9월 2일까지 사할린에 강제동원으로 이주하였거나 사할린에서 출생한 한인(韓人)을 말한다.

2. “동반가족”이란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하는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로서 제33조 제2항에 따라 귀국이 허용된 사람을 말한다.

3. “영주귀국가족”이란 영주귀국(「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을 말한다)한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을 말한다.

4. “귀국지원”이란 사할린동포 및 동반가족의 영주귀국을 위한 지원을 말한다.

5. “정착지원”이란 영주귀국가족의 국내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말한다.

6. “국내유족”이란 사할린에서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국내 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말한다.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봄 비 / 김규성

저 채점관은
지상의 누구에게나 만점을 준다

쓰레기장이나 장미 가시
밤잠을 걸려 넘어진 모란 돌에도
내내 투명하고 둥근 방점을 찍어준다

한 걸음 한 걸음
쉴새없이 문제뿐인 수험생이면서
만나는 것들마다
결핍하면 함부로 가위표를 그어대는
내 거친 손등에까지도

그리고 활시위처럼 우산을 걸쳐
길목을 가로막지만
그 위에도 굵은 동그라미를 쳐준다

“시인의 상상이 따뜻합니다. 빗방울이 특하고 터지는 모습을 가만 가만 살펴볼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말이죠. 쓰레기장부터 장미 가시, 하다 못해 밤 중에 뛰어다니던 짐승 발톱에 걸려 넘어진 모란 돌에게까지 연민을 보내다니요. 시선은 시인의 손등을 잊습니다. 걸핏하면 함부로 가위표를 그어댔던 거칠기만 한 자신의 손등으로 말이죠. 의외의 행보입니다. 시인의 눈길이 세상 이곳 저곳을 더 두루 살필 줄 알았거든요. 구름을 읊조리고 비 개인 하늘을 노래할 줄 알았습니다. 귀하디 귀한 순간이 아닐 수 없어요. 빗방울이 특하고 터지는 순간을 두고도 우리 인간 내면의 양심에 귀를 기울이려던 시인의 시선입니다. 저는 아직 착해지거나 철이 들 마음이 없습디만, 봄 비를 만날 때면 종종 우산을 내려 놓은 채 걸어 보려고요. 그간의 과오를 좀 씻어볼까 하는 마음은 아니에요. 혹시 어디 예쁜장한 아가씨가 함께 쓰자고 어깨를 맞대며 우산을 씌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얘기가 왜 또 이렇게 흘러가나요, 아무튼.”

서울에서 허진원.
2019.04.09.



내년 세계한상대회, 부산광역시에서 열린다



내년 세계한상대회는 부산광역시에서 열린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 이하 재단)은 2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세계한상대회 제34차 운영위원회 및 제35차 리딩 CEO 포럼을 열고 2020년 세계한상대회 개최지로 부산광역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인 경제단체장과 역대 대회장 등 50여 명의 운영위원들은 부산광역시의 개최 계획과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검토한 후 차기 대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했다.

부산광역시는 2006년 5차, 2007년 6차, 2011년 10차, 2014년 13차 세계한상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올해 제18차 세계한상대회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На Сахалине готовятся к соревнованиям по корейской борьбе ссирым

Открытую тренировку провели спортсмены Сахалинской федерации корейской борьбы ссирым. Этот вид спорта на островах официально развивается всего около полугода. Пятисторонний меморандум о популяризации национальной корейской борьбы подписали в октябре 2018 года.

Сегодня движение спортсменов немногочисленно, однако



представители направления уверены, что развитие впереди. Национальной борьбой Страны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уже занимаютс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Аниве и Невельске.

— Ссирым всегда была в душе у членов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Наши деды и отцы занимались этим видом спорта всю жизнь. Например, на ежегодных праздниках по случаю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от японских захватчиков, которые мы отмечаем в августе, проводились и проводятся любительские турниры. Но со временем все меньше ребят стали заниматься борьбой, поэтому мы решили больше внимания уделить развитию этого вида спорта, чтобы снова привить детям любовь к ссирым, — рассказал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дирек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федерации корейской борьбы ссирым Дмитрий Пак.

Корейская борьба ссирым — национальный вид спорта Страны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Она внесена в список нематериальн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человечества ЮНЕСКО. Бои всегда проводятся между двумя спортсменами в небольшой круглой песочнице. Главная цель схватки — используя силу рук, ног и спины, опрокинуть соперника в песок.

На Сахалине среди любителей ссирым совершенно разные люди — учителя, бизнесмены, школьники. Причем занимаются борьбой не только члены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Кондратий Бурмакин сегодня активно тренируется. Сахалинец будет участником первых соревнований по ссирым на Сахалине.

— Это дружественный вид борьбы, как мне кажется. Мне нравится концепция этого вида спорта. Но это нелегко, забирает много сил, потому что соперник — не груша — и постоянно сопротивляется всему, — поделился спортсмен.

Первые официаль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борьбе ссирым пройдут на Сахалине уже в эти выходные. Специально к мероприятию на остров прибыла делегация из Южной Кореи.

— Среди наших почетных гостей — президент федерации борьб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Он приехал, чтобы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нами. Вообще на Сахалине самая крупная диаспора, поэтому они очень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в поддержке нас. Мы надемся на плот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 отметил Дмитрий Пак.

Первенство по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борьбе ссирым состоится 14 апреля.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ойдут на площадке учебно-тренировочного центра "Восток". Старт мероприятия в 10 часов. Вход свободный,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областного минспорта.

Вспоминая прошлое

Предлагаем вашему вниманию материал о корейском театре, существовавшем на Сахалине с 1948 г. по 1959 г. Его автором является Инга Анатольевна Цупенкова (Костанова).

Корейский передвижной

Архив корейского передвижного театра сохранился, правда, крайне фрагментарно, и материалы о его деятельности пришлось собирать буквально по крупицам. В какой-то мере зияющие лакуны позволили восполнить воспоминания его бывших актеров и зрителей.

Однажды, при изучении коллекции по истории драматического театра им. А.П.Чехова, хранящейся в фондах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нам в руки попала фотография с надписью: «Артисты корейского театра выступают перед строителями». Дата и фамилия автора на снимке отсутствовали, но все же не стоило труда догадаться, что речь шла о передвижном корейском драматическом театре, существовавшем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50-е годы.

К сожалению, сегодня об этом уникальном театре вспоминают крайне редко, а между тем его история — это лишь часть серьезной и мало исследованной темы о жизн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оставляющих треть по численности (после русских и украинцев) группу населения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Кроме упомянутой фотографии в собрании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сохранилась небольшая коллекция предметов, принадлежащих актрисе корейского театра Ким Чун Су. Среди них — афиша корейского концертно-эстрадного ансамбля и программа гастролей театра по Сахалину в 1958 году, фотографии солистов ансамбля и фрагментов из спектаклей, эстрадный костюм — кофта и юбка, — в котором Ким Чун Су танцевала свой любимый танец с барабаном. Коллекция была передана актрисой в дар музею в 1994 году. Знакомство же с ней произошло совершенно неожиданно.

В редакции корейской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удалось узнать номер телефона бывшего работника театра Ким Сан Хе, который охотно согласился на встречу. Из разговора с ним выяснилось, что его супруга проработала танцовщицей в театре с первых дней основания и до его закрытия. Через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в комнату вошла уже немолодая женщина приятной внешности, слегка помахивая театральным веером. Все в ней говорило о прекрасных актерских данных. Супруги начали свой рассказ, горячо дополняя и перебивая друг друга, который длился около трех часов. Они многое поведали о своих коллегах-актерах, гастрольных поездках и репертуаре театра, с чувством горести вспомнили о его закрытии.

Одиннадцать лет с успехом у зрителей проработал корейский областной драматический театр, созданный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первые послевоенные годы. Появление этого театра не было случайным. Оно имело свои причины и предысторию, уходящую в далекое прошлое. Как известно, с середины XIX столетия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России сформировалась значительная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сохранившая язык, особенности бытового уклада жизни и культуры, в том числе и древних традиций национального театра.

История корейского театра уводит нас в VI век, когда из коре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Пэкче в Японию прибыли знатоки в «пяти науках» (лекарском искусстве, гадании, календаре, счете и музыке), поразившие воображение японцев. Одной из пяти наук бы-



▲ Артисты концертно-эстрадного оркестра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ского передвижного театра. Южно-Сахалинск. 1950-е годы.

ла музыка, определившая впоследствии развитие корейского театра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Классическая музыкальная комедия, музыкальная драма и историческая драма стали его основными жанрами. Музыкальная комедия в Корее чаще всего создавалась на литературной основе прозы малых форм. Она носит название «пхэсол», жанровое рождение которой уходит своими корнями в XII-XIII века, когда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проза в Корее отделилась от исторической, так называемой житийной. Источниками «пхэсоли» были устные предания, а героями — чиновники и ученые, ремесленники и певчихи-кисэн, торговцы и слуги. В этот период и произошло сближение прозы с театром, перешедшие в его традиции.

Для каждого вида театра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существовали установленные традицией формы и персонажи. В театре масок (камён гык) число персонажей доходило до 25; в кукольном театре (инхён гык) действовал корейский «Петрушка» — Пак Чхон Чжи. В позднем средневековье возник разговорный театр (хва гык), тесно соприкасавшийся с мастерством сказителей, чьи сказы заменяли простонародью книги. Ставились пьесы «Мунхо», «Градоначальник Денихена покупает седло», «Домик Денеса» и другие. В конце XIX — начале XX века небольшие бродячие труппы разыгрывали музыкальные пьесы.

После захвата Кореи Японией развити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театра происходило в условиях борьбы ее народа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Возникшие к этому времен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театры «Вонгакса» (1901), «Квамудэ» (1912), «Хёмнюльса» и другие шли по пути сохранения национальных и освоения европейских форм театра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Сочетание традиций национальной и европейской сцены было характерно и для первого в России корейского театра, действовавшего в 30-е годы XX века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Его предтечей стала национальная театральная бригада, обслуживавшая в основном сельские населенные пункты и рыбные промыслы, на которых работало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корейских рабочих. В 1937 году артисты этого театра разделили судьбу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корейцев, депортированных по указанию Сталина в Среднюю Азию.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Из книги «Долгая дорога к большой сцене», 2001)
Авторы: А.Краев, И.Цупенкова

새고려신문 살리자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 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Сахалинская 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Федерация настольного тенниса» приглашает всех желающих на 34-й чемпиона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настольному теннису сред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Чемпионат состоится 27 апреля 2019 г. в 10-00

по адресу: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Полевая, 6.

Вас ждет увлекательная и интересная игра.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Спор политических сил о новых назначениях министров продолжается

8 апреля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утвердил назначение Ким Ён Чхоля на пост министра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и Пак Ён Сона на пост министра по делам малого, среднего и венчурного бизнеса.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дня состоялась церемония их назначения. Таким образом, после прихода к власт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Мун Чжэ Ина количество глав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х ведомств, которые заняли свои посты без одобрения парламента, достигло десяти человек. Оппозиционная партия Свободная Корея выразила жёсткий протест против новых назначений. Её председатель Хван Гё Ан заявил, что есл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е отменит назначение двух вышеуказанных министров, то у оппозиции не останется другого выбора, кроме как сопротивляться подобным действиям властей вместе с народом. Глава парламентской фракции На Гён Вон также высказалась против назначений министров, заявив, что самая большая причина политических противоречий заключается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Председатель партии Справедливого будущего Сон Хак Кю заявил, что администрация Мун Чжэ Ина игнорирует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Глава фракции Ким Гван Ён заявил, что назначение двух министров является крайним проявлением односторонности и отсутствия диалога со стороны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и самого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Между тем, глава фракции правяще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Хон Ён Пхё заявил, что оппозиционная партия Свободная Корея не должна создавать помехи в реализации президентом своего законного права назначать кадры. 8 апреля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открывает апрельскую сессию. Однако до сих пор стороны даже не приступили к обсуждению рабочего расписания. Поэтому велика вероятность того, что и в апреле парламент вновь не сможет нормально работать из-за разногласий правящих и оппозиционных сил.

Россия направила пшеницу в КНДР

Российская пшеница, поставленная КНДР в качестве гуманитарной помощи, прибыла в место назначения. 4 апрел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е агентство ЦТАК сообщило о том, что пшеница, предоставленная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Ф по линии Всемирной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2 апреля прибыла в порт Хыннам. Другие подробности о прибывшем грузе не указываются. Как сообщалось ранее, 4 марта Россия отправила в КНДР 2.090 тонн пшеницы. Часть груза была выгружена в порту Чхончжина, остальная часть отправлена в Хамхын.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РК призвали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вывести из-под санкций проекты межкорей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Южнокорейски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работавшие в Кэсонском индустриальном комплексе, призвали президента США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вывести из-под санкций проекты межкорей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Данный призыв был озвучен 4 апреля на организованном Советом по примирению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корейской нации мероприятии, посвящённом межкорейским обменам на не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м уровн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указали, что закрытие Кэсон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поставило под угрозу вопрос выживания более 200 тыс. жителей Юга и Севера, которые были задействованы в работе комплекса. Ране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отклонило уже восьмое по счёту прошение вышеуказанных компаний о посещении Кэсона в целях ознакомления с состоянием своих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мощностей.

В РК впервые в мире началось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услуг связи 5G

3 апреля три южнокорейские 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е компании SK, KT и LG впервые в мире начали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услуги мобильной связи стандарта 5G. Начиная с 4 апреля, компании приступили к подключению к новой услуге пользователей смартфона Galaxy S10 5G. Южнокоре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ланировало запустить услугу 5G ещё в марте, но из-за задержки поставок смартфонов с поддержкой данной технологии планы были пересмотрены. Столь внезапное начало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новых услуг связывают с тем, что ранее крупнейший американский оператор мобильной связи Verizon перенёс дату выхода телефонов с поддержкой технологий 5G с 11 на 4 апреля. Технология 5G была успешно протестирована во время зимней Олимпиады в Пхёнчхане в феврал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Мобильная связь пятого поколения обеспечивает высокую скорость передачи данных, которая достигает 25 Гб/с. Это даёт возможность транслировать видео в разрешении Ultra HD.

(RKI)

Межкорейская торговля увеличилась на 3000 процентов в 2018 году

По итогам прошлого года торговля между Югом и Севером Кореи увеличилась сразу в 31 раз по сравнению с 2017 годом. Правда, такой стремительный скачок объясняется не столько реальной активизацией межкоре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колько мизерными предыдущими показателями, на фоне которых данные за прошлый год выглядят внушительно.

Статистику по межкорейской торговле предоставило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ъедин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оторое опубликовало "Белую книгу объединения 2018". В книге описан процесс развития связей между Югом и Севером Кореи, а также прочие аспекты межкорей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огласно данным ведомства, по итогам прошлого года объём межкорейской торговли составил 31 миллион долларов. Для сравнения, в 2017 году этот показатель равнялся всего лишь 1 миллиону долларов. Таким образом, торговля Юга и Севера выросла на три тысячи процентов или в 31 раз в течение года.

Не менее впечатляюще выглядят и другие цифры межкорейских обменов. Если в 2017 году двусторонних поездок на автомобилях не было вообще, то в прошлом году количество таких поездок составило 5999 случаев. Кроме того, в 2018 году в Южной Корею побывали 809 северокорейцев, а в Северной - 6689 граждан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нтересно, что среди таких посетителей значатся также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и председатель Госсовета КНДР Ким Чен Ын. Лидеры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ровели три саммита.

Отметим, что 2018 год действительно стал поворотным и привел к значительному потеплению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Однако реальное межкорейское экономиче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пока трудно возобновить, так как этому мешают как санкции ООН, так и односторонние санкции РК против КНДР. В этой связи внешне эффективные показатели активизаци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отражают лишь очень незначительный уровень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который был ранее.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К)

Дорогие друзья!

Генеральное консу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г. Владивостоке совместно с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м Националь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туризма Кореи приглашает Вас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IV ежегодном фотоконкурсе.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поток российских туристов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также как и количество южнокорейских туристов, посетивших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России, стремительно растёт. Многие ваши друзья, знакомые, а может даже и вы сами уже посетили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В прошлом зарубежные страны называли Корею «страна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или «королевство отшельников». С середины 60-х годов XX века появилось новое название «динамичная Корея». А какой Вы увидели Корею? Какой интересный опыт Вам довелось пережить? Фото в национальном корейском костюме «ханбок» или участие в кулинарном мастер-классе? Какой он - Ваш опыт?

Рассказать о своем опыте вы можете, ответив на вопрос: «Доводилось ли Вам _____ в Корее?»

Предлагаем участникам поде-

литься с нами удивительными фотосториями о новом или уже испытанном ранее опыте в Корее.

- Фотоконкурс состоит из нескольких этапов:

I этап – Прием работ с 15 апреля по 15 мая 2019г.

II этап – Объявление победителей 3 июня 2019г.

III этап –Проведение фотовыставки лучших работ в галерее «Арка»

- Способ участия: онлайн

- ссылка на страницу Центра Туризма Кореи <https://www.facebook.com/KNTOVL>

- ссылка на конкурс <https://www.facebook.com/KNTOVL/app/292725327421649/>

Призовой фонд

1 место (1 человек) – на выбор: Сертификат на "Авиабилеты в Корею на двоих"

2 место (2 человека) – набор корейской косметики

3 место (5 человек) – набор посуды из фарфора «селадон»

* 30 лучших фоторабот получают сувениры

- Условия участия:

- Участвовать могут граждане РФ

- К участию принимаются фотографии, сделанные лично участником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тематике конкурса

- Участник гарантирует, что не нарушает авторские и иные права третьих лиц; в случае подобных конфликтов всю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берет на себя участник

- От каждого участника принимаются до десяти работ

- Фотографии, которые были загружены на фотоконкурс «Корея глазами туриста» в 2016 г., «Зима в Корею» в 2017г., «Корея: моя история» в 2018 г. не допускаются к участию

- Победители предоставляют фотографии в надлежащем качестве для участия в выставке. В случае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материала в ненадлежащем формате, участие в выставке будет невозможным, даже если было занято призовое место.

* Авиабилеты по маршруту Владивосток/Хабаровск/Южно-Сахалинск/Якутск – Инчхон/Пусан/Тэгу

(туда-обратно)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места проживания победителя. Город в Корею выбирает победитель.

Выбор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при наличии прямых рейсов. Авиакомпания выбирается на усмотрение организаторов.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19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за 1 месяц: **82 руб. 14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иглашает на работу молодых людей на должность корреспондента.

Испытательный срок 3 месяца, знание ПК на уровне пользователя, корейский - начальный уровень.

Контактный телефон: 43-67-85, 43-72-94 .

В сахалинск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обсудили приоритеты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а

В рамках разработки новой стратег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до 2035 года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состоялась серия круглых столов. Будущее островного края обсуди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бластной и муниципальной власти, эксперты-экономисты, а также руководители учреждений и предприятий региона.

Новую стратегию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поручению главы регион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овместно с региональны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готовит центр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разработок «Северо-Запад».

- Сейчас положения новой стратегии обсуждаются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всех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и сфер бизнеса. Впереди - диалог с общественностью. После этого, одобренные жителями инициативы, войдут в итоговую программу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а,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едседатель Общественной пала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Иконников поддержал такой подход, отметив значимость учета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в ходе принятия важнейших для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решений.

- Мы, приветствуем общественные обсуждения, особенно когда они касаются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островитян. В конструктивном и аргументированном диалоге рождаются пути решения значимых проблем и задач, - отметил Владимир Иконников.

Главными темами обсуждения на круглых столах 4 апреля стали направлени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ного освоения и пространственного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частники разговора пришли к мнению, что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соседствующий с развитыми странами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должен активнее внедрять современные стандарты в сфере транспорта. Это позволит повысить мобильность людей и грузов, от чего, в свою очередь, зависят качество жизни и комфорт.

- По поручению главы области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ейчас развернута большая работа по повышению транспортной доступност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ведены новые внутрирегиональные авиарейсы, на этих маршрутах начали действовать единые тарифы для граждан, независимо от их регистрации. Впервые вертолетное сообщение связало острова Шикотан, Кунашир и Итуруп. Строятся два грузопассажирских судна для работы на курильс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авиации, морских и железнодорожных перевозчиков мы обсудили следующие шаги в развитии транспорт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 отмет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Сидоренко.

Накануне участники круглых столов рассмотрели вопросы развития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и модернизации ключевых секторов экономики. Участвующий в обсуждении мэ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отметил, что город становится интересен инвесторам. Успешно реализуются инвестиционные проекты, создаются новые рабочие места.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известен уже далеко за пределам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сюда едут туристы.

- С каждым годом появляется все больше комфортных мест отдыха, учреждений спорта, культуры, скверов, кафе, ресторанов для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города. Наша задача - совместно с бизнес-сообществом сделать так, чтобы таких мест становилось еще больше, и они были привлекательны для людей, - сказал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По итогам четырех совещательных дней были обозначены приоритет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а. Среди них - созд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и условий для ведения бизнеса, развитие туризма и транспорт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цифровизация. В числе наиболее перспективных названы нефтегазовая, транспортная, рыбная отрасли, топливно-энергетический, агропромышленный, и туристско-рекреационный комплексы, сферы деревообработки, производства строительных материалов, инноваций и образования.

Более 650 молодых мам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же получили выплату за рождение первенца

Мера поддержки для женщин в возрасте от 19 до 25 лет действует с прошлого года: жительница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 рождении первого ребенка полагается единовременная выплата в размере 150 тысяч рублей. Эти средства мож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на улучшение жилищных условий, получение образования, платные медицинские услуги или приобретение автомобиля.

- Поддерживать молодые семьи - это обязанност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реди мер помощи - региональный материнский капитал, различные выплаты для молодых мам и студенческих семей, льготы по ипотеке. Все они направлены на то, чтобы снизить финансовую нагрузку на сахалинцев, - отмечает гла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Жительниц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офия Литвинова - в числе тех молодых мам, которые получили выплату. Сейчас женщина находится в декретном отпуске по уходу уже за вторым ребенком.

- Ежемесячно мне предоставляют выплату на питание двоих детей - около 5 тысяч рублей. Ранее был выделен материнский капитал, который использовали на

погашение ипотеки. У меня много друзей по всей России, я постоянно общаюсь с ними. Таких мер поддержки, как на Сахалине, в других регионах нет, - говорит Литвинова.

При рождении ребенка студенческим семьям в регионе выплачивают дополнительно 57 тысяч рублей. А для малоимущих семей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компенсация расходов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детской коляски (до 20 тысяч рублей) и товаров для новорожденного - одежды для малыша, постельного белья, комплекта для выписки из роддома (до 10 тысяч рублей). Для беременных женщин и детей до 3 лет предусмотрена ежемесячная выплата на питание. В 2019 году она составила 2362 рубля.

Региональный материнский капитал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сахалинским семьям при рождении (усыновлении) второго и последующих детей. Использовать его можно на улучшение жилищных условий, получение образования, на платные медицинские услуги, а также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автомобиля, ремонт жилья или использовать в виде ежемесячных выплат (5 тысяч рублей), ежеквартальных (15 тысяч рублей) или единовременных (30 тысяч рублей) выплат. Срок действия капитала продлен до 2020 года.

Также при появлении на свет второго ребенка семья может получить выплату на погашение ипотечного кредита. Ее размер в этом году - 249 219 рублей. При заключении договора с Сахалинским ипотечным агентством семьям с детьми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единовременные социальные выплаты на уплату остатка основного долга по кредиту от 500 тысяч до 2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договорился с крупной нефтесервисной компанией о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е мест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стоялась встреча главы регион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крупнейшей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ефтесервисной компании «Шлюмберже» (Schlumberger).

Начиная диалог, врио губернатора отметил весомый вклад компании в разработку шельфовых проектов на острове.

- «Шлюмберже» - важный партнер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омпания помогает нам в развитии экономики и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ы региона, в повышении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людей,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Рассчитываем, что наши партнеры продолжат привлекать на работу мест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Как пояснил вице-президент по персоналу «Шлюмберже» в России 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Денис Петраков, уже сегодня около половины всех работников компании в регионе - сахалинцы.

- Это примерно 400 специалистов. Я сам - местный житель, родители до сих пор здесь живут, поэтому сюда не приезжаю, а возвращаюсь, - рассказал Денис Петраков.

По его словам, компания заинтересована в увеличении количества островитян в трудовом коллективе. Для этого налажены связи с местными вузами и рядом средних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ожидается подписание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соглашения с Сахалински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университетом.

История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Шлюмберже» с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ью ведет свой отчет с 1977 года, когда при участии компании были пробурены первые разведочные скважины на островном шельфе. В 1996 году открылось ее постоянное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 в регионе. А в последующий период начали работать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е базы в Холмске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а также цех по обслуживанию электрических центробежных насосов в Охе. Сегодня мощности объектов используются для обслуживания шельфовых нефтегазовых проектов «Сахалин-1» и «Сахалин-2».

В области компания установила 30 мировых промышленных рекордов, построила более 130 скважин на шельфе, внедрила более 40 новых для Росси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их решений.

Ростуризм положительно оценил концепцию развития туризм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акая информация была озвучена на заседании совета по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который провел гла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рио губернатора назвал туризм ключевой отраслью в экономике региона, так как развитие туристическ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позволяет в быстрые сроки сделать более комфортными условия жизни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 Если у людей будет возможность в выходной день посмотреть хороший спектакль, покататься на горных лыжах или прогуляться по туристической тропе, это становится стимулом жить, работать и создавать семьи на островах. В такой регион будет легче привлечь инвесторов. Мы готовы оказывать поддержку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 которые намерены развивать гостиничный и ресторанный сервис, сферу активного и культурного досуга,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новой туристической концепции центральное место отведено развитию горнолыжного курорта «Горный воздух». Также программа учитывает городскую среду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иродные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экологический туризм, спорт и активный отдых,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ий туризм и морепродукты. Развитие бальнеологическ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позволит

привлекать гостей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и стран в течение целого года, а не только в разгар горнолыжного сезона.

-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внутреннего и въездного туризм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ыло израсходовано 132,6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В этом году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отрасли туризма можно назвать прорывным. В областном бюджете предусмотрено 531,7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На эти средства в 12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обустраивают объекты туристск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 рассказала директор департамента туризма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туризма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ья Пахолкова.

Также на совете по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были даны ответы на вопросы, которые ранее поднял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Например, на прошлом инвестсовете они выступили с предложением построить в Смирныховском районе цементный завод. По мнению бизнесменов, необходимость в таком предприятии обоснована ростом темпов строительства в регионе и дороговизной завоза материала с материка.

Инициативу проанализировали специалисты профильных министерств и в целом идею одобрили. Глава региона проект поддержал и отметил, что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необходимо найти для данного начинания инвесторов.

Зашел разговор и по искусственному разведению в прибрежных вод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ребешка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дикий» молод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не имеют возможности развивать бизнес из-за пробелов в правовом поле. Сегодня Росрыболовство разрабатывает изменения,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т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 добывать морские ресурсы на законном основании.

В завершение мероприятия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дчеркнул: областные власти хотят быть партнерами для бизнес-сообщества. Для эт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будет улучшать условия для ведени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вели новую льготу для инвалидов

Теперь инвалиды 1 и 2 групп, нуждающиеся в улучшении жилищных условий,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выплату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жилья. Данная мера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введена по инициативе глав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Проблема обеспечения жильем социально незащищенных категорий была поднята в конц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Ее озвучил один из жителе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а общественных слушаниях, посвященных обсуждению проект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Тогда врио губернатора поручил проработать этот вопрос. В результате, была введена новая мера соцподдержки. В начале апреля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стартовал прием документов на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выплаты для инвалидов 1 и 2 групп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ил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жилья. Уже подано 4 заявления.

- Наша задача - сделать комфортной жизнь для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В понятии комфорт - жилье одно из главных критериев. Конечно, достойные жилищные условия нужны каждому человеку, но людям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 в особенности,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 д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ля жителей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за исключением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выплата составляет 2,5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Инвалидам, проживающим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з-за высоких цен на жилье помещения, дополнительно будет выделяться по 1 миллиону рублей. Общая сумма выплаты составит 3,5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Жительница Невельска Галина Шмелева имеет инвалидность из-за нарушения опорно-двигательного аппарата. Женщина одной из первых обратилась за назначением новой выплаты.

- Мы с взрослым сыном живем в однокомнатной квартире. Пришлось сделать перепланировку, чтобы кухню использовать под жилую комнату, - рассказала Галина Шмелева. - Мы долгое время стояли в очереди на улучшение жилищных условий, перспектива получить квартиру была далекой. Новая выплата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поменять нашу «однушку» на более просторное жилье. Сейчас подбираем варианты для покупки квартиры.

В этом году с помощью новой выплаты планируется обеспечить благоустроенным жильем около 20 сахалинцев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В областном бюджете на эти цели предусмотрено 53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За назначением выплаты необходимо обращаться в министерство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онсультацию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по телефонам 8 (4242) 670-890, 670-895.

Ранее глава регион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ставил перед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задачу активнее расширять соцподдержку и снижать уровень бедности: речь идет, в том числе, о помощи семьям с детьми, пенсионерам, инвалидам. До 5 млн рублей в год выросла сумма адресной помощи тяжелооболынным сахалинцам, введены единовременные выплаты для семей ветеранов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появились компенсации для владельцев частных домов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дров. На новые меры соцподдержки из бюджета направят более 40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여성독립운동 서울전] ② 들불처럼 번진 3·1운동과 여성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3.1운동 지도, 유관순 열사 인물카드, 대한독립여자선언서 등



한반도 전역에서 일어난 3·1 만세운동 [전시용 도록 캡처]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는 교사와 여학생, 기녀, 산파, 간호사 등 다양한 계층의 여성이 만세운동에 참여했다는 기록과 사진 자료들을 보여준다.

만세운동은 여성들이 개인, 가족을 넘어 민족공동체, 국민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다.

특히 당시 평안도·함경도·황해도·강원도·경기도·충청도·전라도·경상도 등 한반도 전역에서 여성들의 만세 함성이 들불처럼 번졌음을 한눈에 볼 수 있다.

2·8 독립선언서(독립기념관 소장)와 김마리아(1892~1944)

· 황애시덕(1892~1971)· 차경신(1892~1978)의 얼굴, 차경신이 사용한 낡은 영어사전 등의 사진을 볼 수 있다.



김마리아, 차경신, 황애시덕의 사진과 차경신이 사용했던 영어사전 [국립여성사전시관 제공]

김마리아는 대한민국애국부인회 회장, 상해애국부인회 의정원의원 등을 역임한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다. 1923년 미국에 건너가 안창호의 부인 이혜련의 도움으로 정착했다. 황애시덕(에스터)과 박

인덕 등 옛 동지들과 함께 근화회(재미대한민국애국부인회)를 조직, 조국 광복의 대업을 촉진하기 위해 재미동포 사회의 운동을 후원했다.

황애시덕은 평양의 송의여학교 교사들과 애국 비밀결사대인 송죽회를 조직해 항일운동을 하다 도쿄에 유학했고, 현지서 여자유학회를 조직해 활동했다.

3·1운동으로 많은 그리스도교인이 투옥되자 오현관·오현주 등과 함께 옥중 지사와 그 가족을 도울 목적으로 애국부인회를 조직하는 한편, 전국에 지부를 확장해 군자금을 모아 상하이 임시정부에 송금했다.

차경신은 부인회를 조직하고,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비밀요원으로 활약했으며 미국으로 건너가 한국어 학교 초대교장, 대한애국부인단 총단장 등을 역임하며 독립운동을 지원했다.

(계속)
(출처: 연합뉴스)

[우리말로 깨닫다]

듣다와 보다

우리는 감각 중에서 어떤 감각에 가장 의존할까요? 어떤 감각을 가장 믿게 될까요? 아무래도 시각과 청각이 아닐까 합니다. 미각이나 후각, 촉각도 중요한 감각이지만 폭넓게 믿음을 주는 감각은 보고 듣는 것이겠죠.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보는 일과 듣는 일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음악을 들읍니다. 주로 보고 듣는 일입니다. 물론 삶속에는 미각, 후각, 촉각도 함께 있기는 하겠지만 말입니다.



▲ 조현용(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백문(百聞)이 불여일견(不如一見)이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듣는 말입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다는 말이니까 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듣는 감각이 직접 보는 것만 못하다는 말이죠. 저는 이 말을 보면서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낫다는 말은 사실 믿음의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들었더라도 보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귀에 들리는 것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사랑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 관음보살(觀音菩薩)이나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은 그런 경지를 보여줍니다. 소리를 보는 경지입니다. 관음이나 관세음은 소리를 본다는 말입니다. 기독교 구약성경에서 욥은 회개하면서 귀로 듣던 하느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지일 겁니다.

일반적으로 '들어서 아는 것'과 '봐서 아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정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본 것에 대해서는 더욱 확신이 셉니다. '내가 들었어.'와 '내가 봤어.'에는 신뢰에 차이가 있습니다. 들었다고 해서 다 사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섞여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잘못된 소식을 믿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물론 보는 것도 전부 사실은 아닙니다. 선입견(先入見)이나 편견(偏見)이라는 말은 우리가 얼마든지 잘못 볼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관점은 대상을 비뚤로 보게 합니다.

저는 듣는 것과 보는 것의 차이에서 또 주목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보지 못하였더라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내 눈앞에 보듯이 여긴다는 말은 믿음의 경지를 보여줍니다.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나오는 여대목전(如對目前)은 그런 경지입니다. 이 말을 해석할 때 '마치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박성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에서 나오는 번역이 아닙니다. 믿음의 경지라면 '마치'라는 수식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같다'라는 말도 필요하지 않은 경지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제가 앞에 쓴 '보듯이'도 틀린 말입니다. 본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 아니라 본 것입니다. 그냥 봤다고 해야 하는 경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는다는 말조차 필요 없는 경지입니다.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그저 듣는 경지를 사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들어도 믿지 못합니다. 의심이 가득하니까요. 이 때 의심은 좋은 의심이 아닙니다. 부정의 생각이 가득한 의심이죠. 저는 의심에는 사랑의 의심이 있고, 미움의 의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생기면 우리는 보는 경지를 살게 됩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보지 않았어도 믿습니다. 나를 속일 분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면 듣지 않아도 보는 경지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각적으로도 보고, 후각적으로도 보고, 미각적으로도 봅니다. 만져 보고, 들어 보고, 맡아 보고, 맛도 봅니다. 저는 보는 세상, 믿는 세상, 서로 사랑하는 세상을 살고 싶습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우수리스크에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 기념관 개관

▲ ‘최재형 선생 기념관’이 최재형 선생이 순국 직전까지 거주하던 러시아 우수리스크시 소재 건물에 조성돼 3월 28일 오전 개관식을 가졌다.

테이프커팅 순서 (왼쪽에서 네 번째부터)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최재형 선생 손자 최 발렌틴 씨 (사진 국가보훈처)

러시아 연해주 지역 독립운동의 대부분었던 최재형 선생의 독립운동과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관이 러시아 우수리스크에서 문을 열었다.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올해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최재형 선생이 순국하기 전까지 거주한 건물을 전시관으로 조성해 3월 28일 오전 11시(현지시간) 개관식을 가졌다.

이번에 문을 연 ‘최재형 선생 기념관’은 기념관(전시관)과 관리동(영상실 등)으로 구성됐으며, 대지 약 640㎡에 연 건평 100㎡ 규모로 조성됐다.

이날 개관식에는 피우진 국가보훈처장과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최 발렌틴 선생(최재형 선생 후손), 조 바실리 전(全)러시아 고려인연합회 회장, 김 니콜라이 연해주 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장, 문영숙 최재형기념사업회 이사장, 이석배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 고려인동포 및 재외국민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민의례와 최재형 선생 약사소개, 축하, 감사패 전달, 최 발렌틴 선생에 선물 증정, 테이프커팅, 기념관 관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최재형 선생은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연해주로 이주한 후 러시아 군대 군납상인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 조국 독립을 위해 모든 재산과 목숨까지 바치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 고위층 인사에서 요구되는 높은 도덕적 의무)를 실천한 독립운동가로, ‘페치카’(난로)라는 애칭처럼 조선인들에게는 따뜻한 대부였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최재형 선생 기념관은 러시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과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사를 알리는 대표적 독립운동 유적지이자 역사탐방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재외동포신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4월 30일과 5월 8일은 명절 전야로서 근로시간이 1시간 단축된다.

В мае россияне будут отдыхать 13 дней

Согласно постановлению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1 октября 2018 года, на первую половину мая выпадает девять дней отдыха: с 1 по 5 мая и с 9 по 12 мая. Такие длинные каникулы стали возможными благодаря сделанному переносу дней с января и февраля.

30 апреля и 8 мая — предпраздничные дни, которые должны быть сокращены на час.

포로나이스크 우일라족, 모국어교육

포로나이스크에 거주하는 우일타족들이 선조들의 언어(모국어)를 배우게 되었다. 요새 포로나이스크향 토박물관에서 <우일타어, 안녕>이란 연수가 진행되고 있다. 희망자들을 위한 수업은 우일타 문화와 언어의 전수자인 엘레나 비비코와 선생이 맡아하고 있다. 노글리키 주민인 엘레나 비비코와는 포로나이스크 원주민(선주민) 노인고문 류보위 키타지마의 초청으로 포로나이스크로 초청되었다.

엘레나 비비코와는 전통 문화 발전에 큰 공로를 세웠다. <우일타다이리수>우일타어 입문서와 <우일타어 교육>수집의 저자중 하나다. 현재 이 입문서로 우일타어를 포로나이스크 <북방소수민족 전통업 기술> 제3기숙학교 학생들이 배우고 있다 그외 엘레나 비비코와는 우일타어로 많은 문학작품, 동화책, 전설 등을 번역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동시를 모국어로 썼다. 또한 1990년부터 러시아 및 외국 인류학자들과 언어학자들의 연구조사에 참여하고 있다.

"멸종 위기에 처한 언어에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해 2019 년은 유엔에 의해 토착 언어의 해로 선언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업을 조직함으로써 우리는 또다시 이

사실에 주의를 돕니다. 사할린주 원주민들중에도 모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우일타 언어는 수십 년 내에 사라질 수 있는 언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일타어배우기에 원주민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라고 엘레나 알렉세예브나가 말했다.

Поронайские уйльта вспоминают свой язык

Уйльта, проживающие в Поронайском районе, принялись за изучение языка своих предков. В эти дни в поронайском краеведческом музее проходят курсы "Здравствуй, язык уйльтинский". Занятия для всех желающих проводит одна из носительниц уйльтинской культуры и языка — Елена Бибикова. В Поронайск из Ноглик Елена Бибикова приехала по приглашению старейшины абориг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Поронайского района Любови Китазима.

Елена Бибикова внесла большо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традиционной культуры. Была соавтором уйльтинского букваря "Уилтадаирису" и сборника "Преподавание уйльтинского языка". Сегодня по этому букварю уйльтинский язык изучают учащиеся школы-интерната №3 "Технологии традиционных промыслов народов Севера" Поронайска. Кроме этого, Елена Бибикова перевела множество произведений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сказок, сказаний, легенд и писала стихотворения на родном языке для детей. С 1990 года она работает с российскими и зарубежными этнографами и лингвистами.

Чтобы привлечь внимание к исчезающим языкам, 2019 год объявлен ООН Международным годом языков коренных народов мира. Организуя эти занятия, мы тоже хотим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на этот факт — даже среди коренного насе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чень мало людей, владеющих своим родным языком. Уйльтинский — один из тех языков, который может исчезнуть в ближайшие десятилетия. Именно поэтому я приехала сюда — побудить интерес коренного населения к изучению уйльтинского, — рассказывает Елена Алексеевна.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새고려신문 창간 70주년 기념

2019년 우리말 및 러시아어 문예콩쿠르

2019년 6월 1일은 새고려신문 창간 70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와 관련해 새고려신문사는 문학콩쿨(글짓기)을 개최합니다.

• **공모대상:** 사할린 및 연해주 · 극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현지인)

• **공모부문:** 글짓기, 체험수기

• **공모주제:** 한민족의 긍지와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민족전통 문화에 대한 자랑과 긍지심을 일깨우는 글.

한국어 본문 주제는 아무 제한이 없으나 러시아어로는 <우리 가족>, 한국어와 한국문화, 전통, 풍습, 사할린 한인 역사에 관련 글만 받습니다.

• **공모기간:** 2019년 5월 중순까지

• **시상:** 상장과 한국방문권 비롯한 여러상품

• **주최:** 사할린 새고려신문사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콩쿠르 자료들을 e-mail: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아니면 유즈노사할린스크, 체호브거리 37, 새고려신문사로 보내주시십시오.

전화: 43-59-80, 43-7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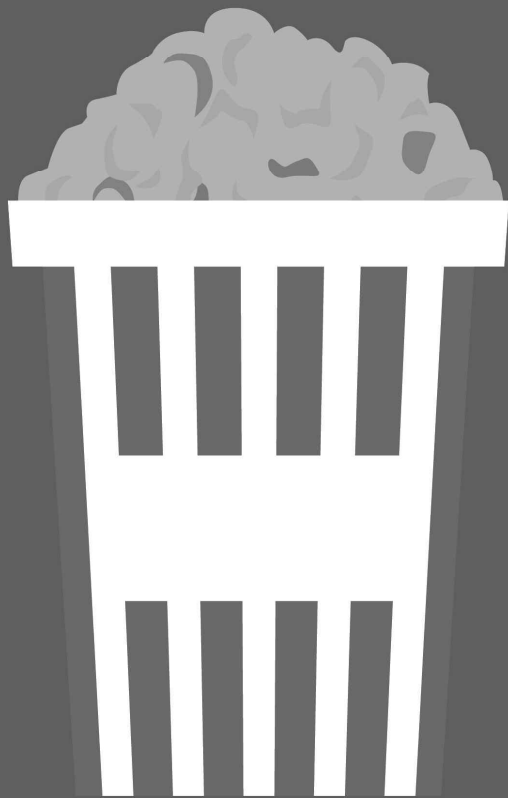
콩쿠르조직위원회

bilet.sakh.com

БИЛЕТЫ

в кино

онлайн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ав (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